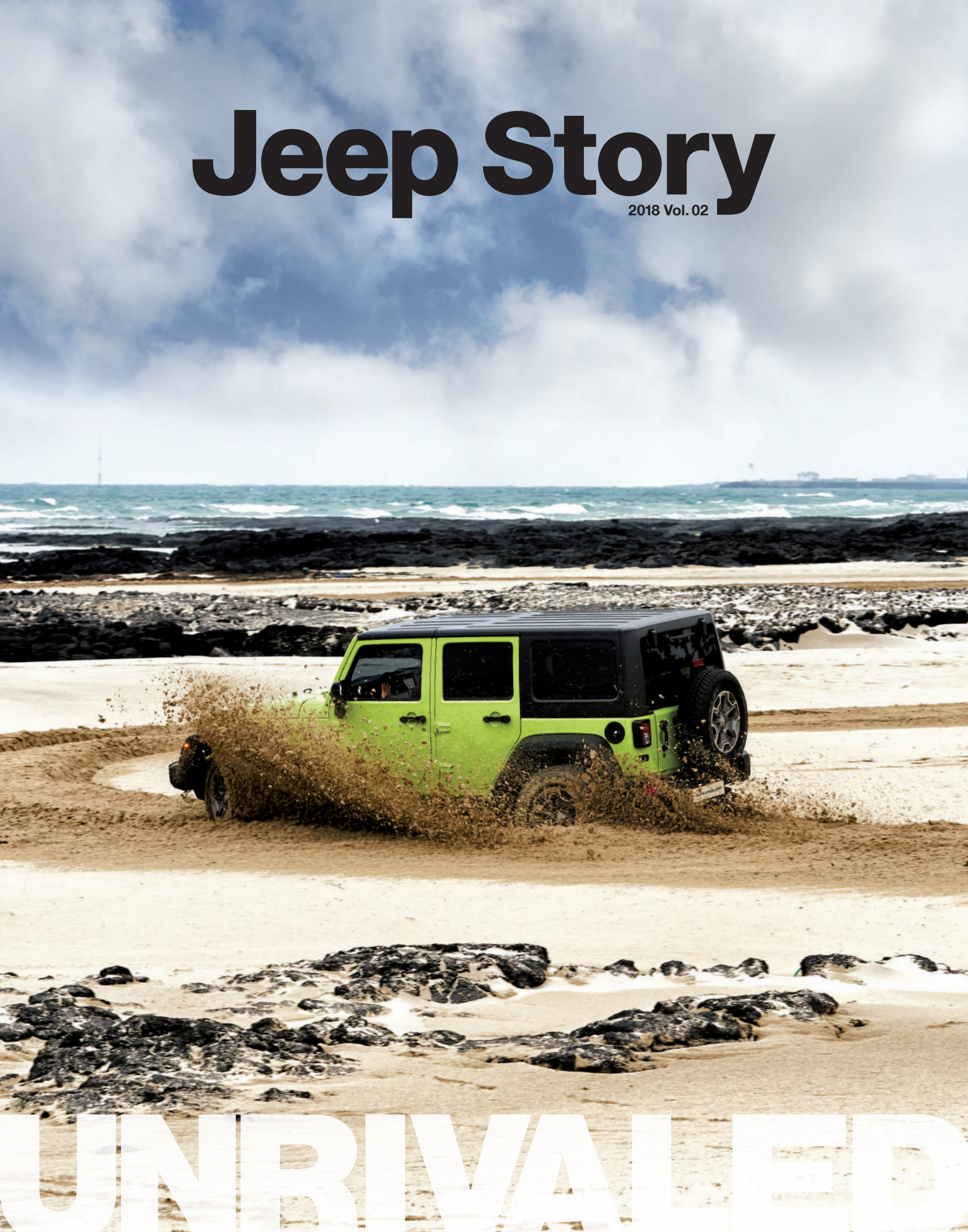
Jeep Story

2018 Vol. 02



UNRIVALED

Jeep Story

2018 Vol. 02

Jeep Lineup

Contents

06 **Jeep Road** Ⅰ UNRIVALED
16 **Test** Why Jeep is Off Road No.1
18 **Place** All about Jeep Road Story
20 **Jeep Road** Ⅱ Road Beyond The Map
26 **Music** Jeep on the Beach
28 **New Model** New CHEROKEE
30 **Unrivaled People** The One and Only
32 **My Jeep Story** 김진우, 김승현
42 **My First Ride** 서사무엘, 이우성
52 **Style** Jeep Accessory
54 **Heritage** The Icon Of Victory
58 **Brand News**
62 **World Surf League** Let's go surf with Jeep
64 **Jeep Map** Service Centers

UNRIVALED

since 1941

최초의 SUV를 정의하고, 오프로딩이라는
기존에 없던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낸 Jeep.
Jeep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오프로드란 무엇일까?
야생의 섬 제주에서 'Jeep Road'의 발견을 위한 첫 여정을 시작했다.

※본 콘텐츠는 허가된 장소에서 오프로딩 전문 드라이버의 도움을 얻어 촬영하였습니다.

우리는 모험을 통해 서로를 알아간다. 각자의 위치에서 누군가는 앞 길을 밝혀주고, 누군가는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하나의 길고 긴 여정을 떠난다.

빛나는 숲을 떠나 고요한 숲길로 향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프로드로 떠나는
이유를 묻는다. 모험심이라 말할 수도
있고, 도전정신은 스릴이라 표현할 수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자연과
교감하며 즐기는 자유의 행복 아닐까.

폭우로 생긴 웅덩이든, 자갈 또는
돌이 많은 불규칙적인 길이든
Jeep의 셀렉-터레인(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은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운전자를 돕는다. Jeep가
SUV를 대표하는 고유대명사로
자리잡은 이유, 겪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Jeep의 4×4 시스템만큼 든든한 것도 없다. 지구상 가장 거친 지역에서 설계되고,
다양한 시험을 거쳐 완성된 4×4 시스템은 험난한 지형을 마주한 운전자에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Jeep에게는 눈앞에 펼쳐진
모든 곳이 길이다. 눈으로 뒤덮인
비탈이든, 폭우로 생긴 물길이든,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든.
도전과 모험을 향한 Jeep만의
특별한 정신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Why Jeep is Off Road No.1

Jeep Road의 여정은 제주도가 간직한 자연 그대로의 오프로드와 마주했다.
제주도의 여정 속 Jeep가 오프로드의 최강자임을 입증한 순간들을 모았다.

Articulation

비대칭이거나 가파른 오르막을 이동할 경우 지면에 가능한 많은 타이어를 유지하며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Jeep는 하나 이상의 타이어가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휠이 안정되고 결속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준다. 제주도에서 마주한 비대칭 오르막 코스, Jeep는 효율적인 동력 전송으로 어떤 착오도 없이 오르막을 올랐다. 아찔한 각도 앞에서도 Jeep는 천천히 하지만 안정적이게 앞으로 나아갔다. 오프로드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TRAIL RATED®

Jeep만의 엄격한 오프로딩 미션, 바로 TRAIL RATED®다. TRAIL RATED®의 마크를 달기 위해선 5가지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높은 곳에 위치한 RUBICON TRAIL과 유타주 동쪽에 위치한 아찔하게 깊은 구덩이가 즐비한 MOAB TRAIL. 이 두 곳을 달리는 동안 마주하는 5가지의 오프로드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만 딸 수 있는 TRAIL RATED®. Jeep 중 국내에선 WRANGLER와 RENEGADE TRAILHAWK가 TRAIL RATED®마크를 달며 뛰어난 오프로딩 성능을 증명했다.

Traction

트랙션은 구동력을 말한다. 구동력은 자동차를 앞으로 진행시키는 힘의 근본이다. Jeep Road를 떠났을 때 제주도는 폭우로 인해 곳곳에 진흙 길이 나타났고, 빗물을 머금어 미끄러운 비탈도 나타났다. Jeep만의 든든한 트랙션 성능은 진흙이 즐비한 비탈길에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진흙에서 바퀴가 헛돌거나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는 일은 Jeep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Water Fording

물을 건널 수 있는 도하 능력이다. 폭우로 생겨난 물길 혹은 웅덩이도 Jeep라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 Jeep는 전기 장치 및 개방된 부위가 밀폐되어 있고, 공기 흡입구가 높은 위치에 자리 잡아 안전하게 물을 건널 수 있다. 폭우로 인해 생긴 물웅덩이에서 Jeep의 도하 능력을 입증했다. 아무런 탈도 없이 순조롭게 물을 건넌 Jeep, 이로써 또 하나의 미션을 완벽히 수행했다.

Maneuverability

자동차를 말할 때 기동성을 빼놓을 순 없다. Jeep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신속히 피하고, 좁은 틈새를 빠져나가거나, 사고가 난 장소를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한 뛰어난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스티어링과 최적화된 휠 베이스를 통해 Jeep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만난 가시밭길, 숲길, 자갈밭 등 다양한 오프로딩 코스에서 Jeep의 기동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Ground Clearance

Jeep는 차량의 밑면과 지면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여 차체 바닥의 손상 없이 오프로딩 코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제주도에서 만났던 물길, 가파른 언덕, 진흙밭을 달리는 동안 Jeep는 어떠한 손상도 없이 모든 길을 달렸다. 제주도의 오프로딩 코스를 모두 마친 Jeep, 왜 Jeep를 오프로드 최강이라고 말하는지 Jeep Road가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

All about Jeep Road Story

Jeep Road가 거쳐왔던 제주도 오프로딩 여정을 소개한다.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는 온로드부터 극한의 오프로딩을 체험할 수 있는 제라진 캠프, 편안히 쉴 수 있는 숙소까지. 제주도 오프로딩의 A to Z를 이곳에 담았다.

Road Trip A

서부 해안도로

제주공항에서 서쪽으로 출발하면 관광객 및 현지인이 사랑하는 해안이 가득하다. 오프로딩을 떠나기 전,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담아보자. 서부 해안을 따라 달리다 보면 가장 먼저 곽지 해수욕장을 만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인기 있는 상위 해변 5곳에 속한 명소답게 에메랄드 빛 파도가 넘실대는 이국적인 비주얼을 감상할 수 있다. 곽지 해수욕장 이후로는 한림, 협재, 금릉 등의 아름다운 해변이 끝없이 이어진다. 아무리 오프로딩을 즐기러 왔다지만, 제주에 온 이상 해안 도로를 달려보지 않을 수 없다. 아름다운 풍경을 한가득 눈에 담고 오프로딩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해보자.

주변 맛집 수우동 수요미식회를 통해 알려진 제주도 맛집. 너무 유명해진 탓에 예약이 아니면 음식을 맛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달짝지근한 국물이 일품인 자작냉우동이 메인 메뉴이며, 두툼한 살코기에 얇은 튀김 옷을 입힌 돈가스도 손님이 자주 찾는 단골메뉴 중 하나다. 아름다운 협재 해변을 바라보며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눈과 입이 즐거운 서부 해안 최고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다.

Address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길 11
Tel 064-796-5830

Road Trip B

천왕사 숲길

효리네 민박에 나온 뒤로 더욱 유명해진 제주도 천왕사 숲길. 본격적인 오프로딩을 위한 몸풀기 코스로 적합하다. 비록 온로드지만 왕복 2차선의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드라이빙 감각을 익히기에 좋다. 그리고 길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삼나무길은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국적인 매력까지 담고 있다. 드라이빙을 계속 하다보면 마치, 자동차 광고 속 모델이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다만, 겨울에는 눈이 자주 쌓이기 때문에 미끄러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물론 Jeep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변 맛집 마구로 쇼쿠도 마구로는 참치, 쇼쿠도는 식당을 뜻한다. 참치 식당이라는 단순한 이름을 가진 이곳은, 오사카에 본점을 둔 맛집이다. 국내에는 제주점 한 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점심 시간 대에만 장사하기 때문에 오픈 전부터 대기해야 한다. 매일 정해진 양의 재료만 주문 받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싱싱한 참치 회를 맛볼 수 있으며 양도 상당히 푸짐해서 오프로딩을 떠나기 전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겠다.

Address 제주 제주시 연삼로 422
Tel 064-726-5242

Road Trip C

제라진 오프로드 캠프

제라진 캠프는 평소 오프로딩에 관심이 많던 캠프 대표가 본인의 사유지에 15개의 코스를 직접 만든 광활한 오프로드 캠프다. 초보자를 위한 기본 코스부터 중상급자를 위한 험난한 코스까지 준비된 이곳은 제주도에서 오프로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꼭 들러야 하는 곳이다. 울퉁불퉁길부터 진흙탕길, 가시밭길, 급경사 등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험난한 오프로딩 코스를 겪어볼 수 있다. 게다가 제주 동부 해안을 한 눈에 관망할 수 있는 선새미 오름까지 위치해 있으니 금상첨화다.

주변 맛집 제주한면가 고기국수는 흑돼지를 고아낸 육수에 돔베고기라 불리는 수육을 올려 만들며, 기호에 따라 파 등을 곁들여 먹는 면 요리다. 제주한면가는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하다. 주문과 동시에 면을 삶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부드럽고 탱탱한 면을 맛볼 수 있다. 게다가, 고기 국수 특유의 기름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Address 제주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373
Tel 064-782-3358

Road Trip D

제주 플레이스

오프로딩 투어에는 코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저녁에 쉴 수 있는 안락한 숙소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제주 플레이스는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다. 기대면 곧바로 잠들 것 같은 푹신한 침구류는 물론,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한 방에 날려 줄 만큼 맛있는 레스토랑이 플레이스 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플레이스(Playce)라는 이름답게 공연 혹은 영화 감상, 강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 오프로드 여행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면 플레이스 제주를 강력히 추천한다.

주변 맛집 스탭밀 스탭밀은 '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레스토랑이다. 때문에 단맛이 좋고, 입을 넣었을 때 쌀이 풀어지면서 쫀득한 식감을 더해줄 수 있도록 '히토메보레' 품종의 쌀로만 밥을 짓는다. 장 또한 직접 담그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저녁 7시가 되면 한라산 소주부터 다양한 전통주와 제주의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다고 하니, 맛과 재미 모두를 누리고 싶다면 스탭밀을 찾아보자.

Address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 20
Tel 064-766-3005

프리마딜러 제주 전시장

1992년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들어선 수입차 전시장. 제주도는 오름과 비포장도로가 많은 특수한 지형으로 Jeep의 인기가 높다. Jeep의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은 제주도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장 잘 반영한 차로 험한 제주도의 지형을 운전하기 좋다. 이런 인기를 증명하듯 Jeep 제주 전시장은 제주시의 가장 중심가에 위치해 있다. Jeep 라인업 차량 전시와 시승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거침없는 오프로딩을 꿈꾸고 있다면 들려보도록 하자.

연락처 064-745-4900 **영업시간** 09:00~21:00(평일 주말 상시 오픈)

Road
Beyond The Map

지도 밖으로 벗어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경관이 우리를 반긴다.
태고의 자연을 그대로 담은 푸른섬 제주에서 가보지 않았던 나만의 길을 달려본다

제주도는 화산 분화로 이루어진
야생의 섬이다. 그렇기에 운전하기
어려운 구간도 많다. 그런 의미에서
트레일 레이티드(TRAIL RATED®)와
같은 혹독한 오프로딩 테스트 과정을
거쳐 완성된 Jeep는 제주 지역에
꼭 맞는 차량이라 할 수 있다.

카이사르의 일화로 유명한 루비콘강을 상징하는 WRANGLER Rubicon. 과감하게 주사위를 던졌던 그의 자신감만큼이나 훌륭한 루비콘의 자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네비게이션 밖으로, 온로드 밖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약속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Jeep Road가
지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Jeep Road는 자유의 무게를 안다.

Jeep on the Beach

Jeep를 타고 제주도 해안도로를 달려본다. 모래사장과 현무암 해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에메랄드빛 파도를 바라보며, 스피커의 볼륨을 조금씩 높여 본다. 더없이 아름다운 장소에
어울리는 더없이 낭만적인 음악. 제주 해안도로 드라이빙에 어울리는 Jeep Music을 소개한다.

**RENEGADE를 타고 제주 해안 도로를 달린다.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를 활짝 연다.
바람 끝에 머리카락이 살랑거리며 귓가를 간질인다. 바람결에 음악이 실렸다.
그 음악을 자세히 들어보니 본즈(Børns)의 'Supernatural'이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옛말은
정말 옛말이 돼 버렸다. 제주를 갈망하는 건 말이 아니라
사람이다. 제주의 신비와 정취에 한번 젖어 들기 시작하면
향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봄이면 더욱 그렇다.
에메랄드 빛 바다와 푸르름이 솟는 대지. 그래서 찾는다.
자꾸만 가본다. 제주와는 결코 이별할 수 없다.
제주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고 싶지 않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그 중 가장 멀리해야 할 일은 해안도로
드라이브다. 절대 금물이다. 그 짭조름한 바닷바람 내음에
눈이 시릴 만큼 푸른 바다를 맞닥뜨리면 그걸로 게임
끝이다. 평생 제주를 그리워하게 된다. 심지어 그 차가
Jeep였다면 아무 조언조차 해줄 수가 없다. 제주의 구석
구석을 모두 가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제주에 사는
수밖에. 과장됐다고? 아니다. 어디 한번 상상해보자.
Jeep RENEGADE를 타고 제주 해안 도로를 달린다.
듀얼 패널 파노라마 선루프를 활짝 연다. 바람 끝에
머리카락이 살랑거리며 귓가를 간질인다. 바람결에
음악이 실렸다. 그 음악을 자세히 들어보니 본즈(Børns)의
'Supernatural'이다. 어떻게 하나. 이 멋진 풍경 속에 머무는
당신에게 마치 영화 속 배경음악 같은 음악까지 들려오다니.
'Supernatural'은 본즈의 세 번째 정규앨범 〈Blue
Madonna〉에 실린 곡이다. 디스코와 펑크(Funk),
일렉트로니카와 신스팝, 글램록과 사이키델릭 등 갖가지
장르를 맘껏 뒤섞고 휘저어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본즈는 자신만의 음악을 추구한다. 굳이 따지면 록음악에
가깝지만 장르는 대수가 아니다. 그저 즐겁고 상쾌한
음악을 만들 뿐이다. 이 유려한 음악이 RENEGADE의 9
스피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흘러나오는 장면을
머리 속에 그려보자. 심지어 제주의 해안도로에서. 경쾌하고
당당한 RENEGADE로 즐기는 드라이브는 첫사랑의
흔적처럼 마음 속에 각인될 거다.
이제는 다른 Jeep를 떠올려볼까? Jeep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WRANGLER가 좋겠다. WRANGLER라면
지붕일랑 시원하게 거둔 채 달려야 한다. WRANGLER
하면 정통 오프로더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4×4 오픈에어링 모델이다. 탁월한
주행능력은 제주도 도로를 달리는 맛을 낸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달려보자. 자연을 벗삼아 달리는
WRANGLER에게 햇살과 바람은 언제나 함께하는 친구다.
WRANGLER라면 지붕 벗고 맞는 게 당연한 예의다.

Jeep Music in Jeju

RENEGADE

Børns 'Supernatural'

2018년 1월에 발매된 〈Blue Madonna〉에
수록되어있다. 신비로운 목소리의
소유자 Borns의 특유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몽환적이고 댄스블한
사운드와 함께라면 제주도 해안도로를
한층 더 다채롭게 느낄 수 있다.

WRANGLER

**Khruangbin
'Two Fish and an Elephant'**

2015년 발매된 〈The Universe
Smiles Upon you〉에 수록된 곡이다.
텍사스 출신 3인조 밴드 크루앙빈
노래로 육감적인 사운드가 일품이다.
배경처럼 들리는 자연의 소리가
경쾌한 드라이빙을 만들어준다

CHEROKEE

Cigarettes After Sex 'sunsetz'

2017년 8월에 발매된 〈Cigarettes
After Sex〉의 수록곡으로 잔잔한
기타 선율과 감미로운 보컬이 매력적이다.
'Sunsetz'의 제목처럼 노래 자체에서
석양이 묻어 나오는 듯하다.

WRANGLER의 알파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크루엉빈(Khruangbin)의 'Two Fish and an Elephant'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여유로운 WRANGLER의
발걸음과 제주의 따사로운 태양이 크루엉빈의 연주에
그대로 녹아 들었겠다. 한없이 평화롭고 한적한 길을
달리는 WRANGLER와 그 옆으로 넘실대는 황금빛 파도.
옆자리에 앉아 세상 행복한 미소로 날 바라보는 그. 혹은
그녀. 이건 정말 제주에 기거하란 명령이나 마찬가지다.
크루엉빈의 〈The Universe Smiles Upon You〉에 실린
이 매혹적인 음악이 WRANGLER 안에 감돌면 제주의
신비로운 장소와 전설 어린 곳들에 다다를 것 같다.
음악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WRANGLER니까.
WRANGLER는 가리지 않는다. 길이든 아니든. 거칠 게
없다. 역시 최강 오프로더다.
하지만 붉게 물든 석양 곁을 달리는 Jeep라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그 자리의 주인공은 무조건 GRAND
CHEROKEE다. 달리기마저 풍요로운 이 럭셔리 SUV는
파도에 산산이 부서지는 붉은 햇살까지 모두 포근히
담아낼 것 같다. 석양과 함께 세상이 저문다 해도 GRAND
CHEROKEE라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한 믿음이
있다. 온로드든 오프로드든 GRAND CHEROKEE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노을진 바닷가를 달리는 GRAND CHEROKEE를
상상해보자. 자연스레 시거렛 애프터 섹스(Cigarettes
After Sex)의 'Sunsetz'이 들리는 듯하다. 이 낭만적인
사운드는 506와트나 되는 출력에 9개의 스피커를 두른
알파인 오디오나 되어야 감미롭게 흘러나와 귀로 쏙
파고든다. 간단한 편곡에 말랑한 사운드 같지만 베이스가
상당히 강조됐다. 어지간한 오디오는 버텨내지 못할 만큼.
사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반전이 더 있다. 조금은 야한
느낌의 이름이지만 음악은 몽환적이고 나른하다. 데뷔
9년차에 첫 번째 정규앨범을 발표했다. 텍사스 출신인
것도 의외긴 하다. 하지만 문화와 친근한 도시 엘파소
출신이라고 생각하면 수긍이 간다.
GRAND CHEROKEE의 포근한 시트에 앉아 시거렛
애프터 섹스의 'Sunsetz'을 들으며 황금빛으로 물든 제주
바다를 바라보고 달리는 기분은 정말 황홀하겠다. 눈부신
풍경의 일부가 되는 경험이란 가히 떠올리기도 어려울 테니.
가만 보니 제주보다 Jeep의 매력이 먼저 스미겠다. 그것도
더 짙게. Jeep와 함께라니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New CHEROKEE

오늘날 SUV의 진정한 시작을 알린 것은 Jeep의 CHEROKEE였다. 2018년 4월 출시될 New CHEROKEE의 탄생을 기념하며 중형 세그먼트를 재정립하고 SUV의 새로운 지표를 새겼던 CHEROKEE GENERATION의 역사를 따라가 보자.

더욱 강력해진 중형 SUV의 최강자, New CHEROKEE

Jeep는 2018 국제 제네바 모터쇼에서 New CHEROKEE 모델을 공개했다. New CHEROKEE는 콤팩트 SUV CHEROKEE의 풀체인지 모델이다. 중형 세그먼트의 재정립이라는 목표로 약 11년 만에 부활한 CHEROKEE가 다시 한번 디자인과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며 최강 중형 SUV의 입지를 다졌다. 다가올 4월경, 우리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New CHEROKEE. 과연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장 먼저 눈여겨 볼 것은 Jeep 고유의 아이코닉을 더해 더욱 고급스러워진 디자인이다. 헤드램프와 테일게이트 모양에 변화를 주고 CHEROKEE 디자인의 큰 특징 중 하나인 유선형 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리프게이트 중앙으로 이동시키며 새롭고도 대담한 외관을 완성했다. 프리미엄 LED 전조등과 안개등, 주간주행등에 변화를 주었으며 후미등 역시 돋보일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했다. 승차감과 핸들링 역시 탁월하다. 최상의 차체 비틀림 강성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프런트–리어 서스펜션 시스템과 향상된 고효율 9단 변속기 그리고 80가지 이상의 첨단 안전 및 보안 기술은 오너의 편안하고 안락한 운전을 돕는다. 엔진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됐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형 SUV답게 첨단 2.0리터 직분사직렬 4기통 엔진을 탑재하여 향상된 기능과 연비를 제공한다.

Jeep만의 4×4구동 능력이 더해진 중형 SUV, New CHEROKEE는 온–오프로드 주행이 모두 가능한 최강의 SUV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첨단 사양과 다양한 파워트레인은 최초이자 최강인 CHEROKEE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기에 충분하다.

The First SUV with Youth and Adventures
SJ(1974~83)

4륜 구동의 장점과 함께 세련된 스타일과 편리성을 제공했던 Wagoneer는 CHEROKEE의 초기 모델이다. 4×4차량 최초의 자동변속기, 최초의 6기통 트럭 엔진, 독립적인 프런트 서스펜션이 있는 Wagoneer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CHEROKEE(SJ)는 이런 Wagoneer의 2도어 버전으로 출시되었다. 모험을 즐기는 젊은 운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며 최초로 'Four Wheeler of the year'을 수상하는 영광을 거두기도 했다. 'Sports Utilit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차이기도 하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만들며 약 9년간 이어진 SJ의 역사는 진정한 SUV 시작의 기틀을 마련했다.

The 4×4 Car that dominated the Market
XJ(1983~2001)

자동차의 미래는 SUV에 달렸다는 아메리칸모터스 시장조사 후 CHEROKEE(XJ)가 탄생했다. XJ는 풀 사이즈 SJ보다 키가 작고 무게도 가벼웠지만, 성능은 그 이상인 혁명적인 차량이었다. 특히 사륜구동 성능을 자랑하며 비포장 도로 주행력과 광범위한 변개조성이 뛰어난 차량이었다. 당시 유일하게 2도어와 4도어 모델을 모두 제공하는 모델이기도 했다. 84년 출시된 All New XJ 시리즈는 주요 오프로드 매거진 3사가 수여하는 '4×4 of the Year' 상을 휩쓰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XJ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Jeep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팔린 차량으로 남아있다.

The Fame of the SUV
KJ(2001~07)

미국에서 리버티(Liberty)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으나 이외 국가에서는 CHEROKEE로 출시되며 XJ의 명성을 이어갔던 차량이다. 네모진 XJ의 프런트와 Willys MB를 연상시키는 둥근헤드램프, 7 슬롯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한 디자인을 갖추며 Jeep의 Identity가 강화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독립 프런트 서스펜션과 신형 3.7L V6 엔진을 달며 공학적인 진보를 시도한 차량이기도 하다. Jeep만의 고유성을 간직한 채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중형 SUV의 명성을 이어갔던 KJ는 이후 오프로드의 감성을 간직한 대중적인 SUV, CHEROKEE가 부활하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The birth of a public SUV
KL(2014~)

Jeep는 오프로드 감성을 간직한 대중적인 차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 그 결과 중형 세그먼트를 재정립할 것을 약속하며 CHEROKEE라는 이름이 소멸한 지 약 11년 만에 CHEROKEE(KL)를 세상에 내놓았다. KL은 크라이슬러와 피아트가 공동개발한 컴팩트 플랫폼을 사용하였으며 CHEROKEE 역사상 처음으로 전륜구동이 추가되었다. 다이내믹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도로 조건에 따라 주행 타입을 바꿀 수 있으며, 사막과 진흙탕도 막힘없이 질주가 가능하다. 새롭고 모던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KL은 중형 SUV의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The One and Only

SUV의 시작을 알리고, 열풍을 만들어낸 살아있는 전설 Jeep.
그와 마찬가지로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시대의 정점을 찍었던 인물이 있었다.
무적의 Jeep를 닮은 그들을 소개한다.

01
Michael Jeffrey Jod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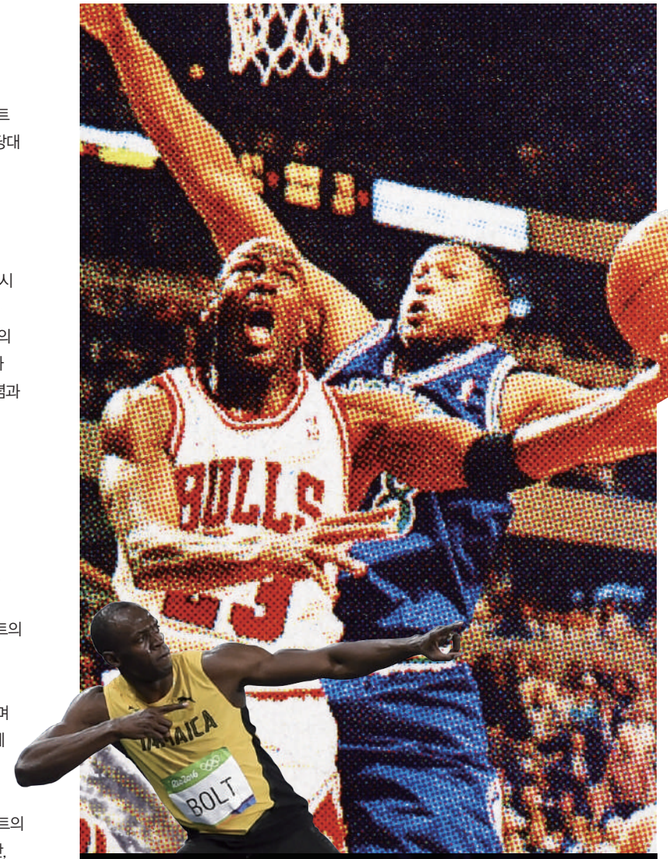
"신이 마이클 조던으로 변장한 것 같다." 당시 NBA 챔피언이었던 래리버드가 조던과 시합이 끝난 후 한 말이다. 당시 조던은 혹독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질 몸매를 다진 후 플레이오프에 복귀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선수였던 래리버드가 속해 있었던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혼자 63점을 퍼붓는 기록을 남긴다.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플레이오프 1경기 최다득점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NBA를 비롯하여 전 세계 농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슈퍼스타였다. 통산 게임당 득점이 30.1점으로 올 타임 1위에 자리 잡고 있는 역대 최고의 스코어 역시 조던이 세운 기록이다. '농구는 몰라도 마이클 조던은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던은 농구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러나 그런 그는 오히려 자신의 성공을 실패에서 찾는다. "실패하고 또 실패한 것이 나의 성공의 이유"라 말하던 조던, 그가 말했던 실패는 자신의 한계에 계속해서 도전했던 집념과 열정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02
Usain St. Leo Bolt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시작으로 금메달 8개를 따내고 100m 9.58초, 200m 19.19초의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육상의 신, 우사인 볼트. 200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0m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울 때 볼트의 발이 땅에 닿아 있던 시간은 3.29초, 공중에 떠 있던 시간은 6.38초였다. 그의 질주는 달리기라기보단 차라리 비행에 가까웠다. 놀라운 볼트의 신기록 뒤에는 혹독한 훈련이 있었다. 일주일 중 6일을 훈련에 매진했으며 그가 앓고 있던 척추측만증을 보완하려 더욱 강도 높은 근육 강화 운동에 매진했다. 인간탄환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속도로 10년간 세계 육상을 쥐락펴락했던 우사인 볼트. 2017년 은퇴 전 마지막 대회였던 런던 세계 육상대회에서 허벅지 경련으로 트랙 위에 넘어졌지만, 한계를 넘어선 볼트의 역사를 아는 관중들은 그에게 힘찬 박수를 보냈다. 그는 트랙을 떠났지만, 그가 보유한 육상 세계신기록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록이 되었다.

03
Floyd Mayweather Jr.

무패의 복서 메이웨더. 그는 지금까지 47경기를 하며 한 번도 지지 않고 사상 최초 무패로 5체급을 정복했다. 지금은 전 세계 대진료 1위의 최고의 스포츠 스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다. 그의 아버지는 마약상이었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다. 그는 어린시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루 종일 복싱 연습에 몰두했다. 그 결과, 그는 프로 데뷔 후 매니 파퀴아오, 후한 마누엘 마르케즈, 리키 해튼 등 당대 강자들을 모두 꺾는 무패의 기록을 만들어냈다. 특히 2015년, 매니 파퀴아오의 드림매치에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21세기 중량급 최고의 복서로 등극한다. 말 그대로 라이벌이 없는 무적의 챔피언이다. 하지만 메이웨더는 스스로 천재로 불리기를 거부한다. 끈질기고 지독하게 매달렸던 훈련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의 비결로 절실함을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다는 절실함으로 성공을 원할 때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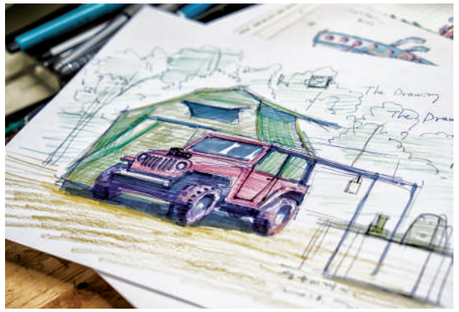
MY
JEEP
Story

나만의 Jeep 이야기

차는 우리의 인생을 따라간다. 거침없는 도로와 복잡한 찻길뿐만 아니라
예술가에게는 예술이 되고 트레이너에게는 스포츠가 된다.
어느덧 나의 인생을 닮아 있는 내 차, 그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한다.

CJ-7
김진우 —— 작가

회화를 전공했지만, 자동차에 대한 사랑 하나만으로 Jeep CJ-7를 직접 만들었던 설치미술 작가 김진우.
그는 어떠한 도움 없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CJ-7를 리빌딩하며 Jeep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관심이 생기게 됐다고 말한다. Jeep에 대한 그의 진정 어린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동차를 리스토어 하기 전
직접 그림을 그리며
작품을 구상해본다.

"Jeep의 M38 모델 아세요?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 중 하나였죠." 김진우 작가를 만나기 위해 문래동 작업실로 찾아갔을 때, 그가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다.
그의 말마따나 M38은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헌을 한 모델이며, 추후 미군이 남기고 간 윌리스 M38을 바탕으로 신진 자동차에서 최초의 국산 차, 시발(始發)을 만들기도 했다.
김진우 작가는 자동차와 인연이 먼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까닭에 회화를 전공하게 되었고 주변에도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림 외에도 산악 오토바이 등의 익스트림 스포츠도 함께 즐겼다고 말했다.
그렇게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오프로딩이 가능한 자동차로 이어지게 되었고, 자동차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Jeep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SUV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죠. 평소 관심 있던 차량을 비롯하여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까지 공부하면서 SUV의 조상이 Jeep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CJ-7를 리스토어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대학에서 회화를 공부한 것만으로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었죠. 기계공학도 알아야 하고, 설계도도 그려야 하며, 그러한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CAD, 3D 등의 툴을 다루는 법도 익혀야 했죠.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했기 때문에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처음 CJ-7을 리스토어하며 스스로에 피와 살이 되는 2년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배우며 발견하고 알아가는 재미를 아는 사람이었다.
"리스토어를 진행할수록 Jeep의 기계식 구조에 반하게 됐어요. 요즘

**SUV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죠. 평소 관심 있던 차량을 비롯하여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까지 공부하면서
SUV의 조상이 Jeep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시되는 차량은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Jeep처럼 기계식 구조를 고수하는 브랜드는 드물죠. 물론, 디지털 방식이 기계식에 비해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주기에 이용하는 거겠죠. 하지만 다양한 편의를 만족시켜주는 만큼 구조도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고장이 발생하죠. 그에 비해 기계식 구조는 고장의 발생 빈도가 낮을뿐더러 발생하더라도 디지털에 비해 상당히 간단한 방법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의 기계에 대한 관심은 작품에도 철저하게 반영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영화는 대부분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트릭스가 그렇다. 하지만 김진우 작가의 생각은 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류는 충분히 인공지능 및 로봇과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과 기계 그리고 자연, 이 세 가지는 현재에도, 과거에도, 지금에도 뗄 수 없는 공존의 관계에 놓였다고 생각해요."

그는 국내 오프로드 문화를 이끌었던 1세대 인물이기도 하다. Jeep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Jeep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고, 오프로딩 혹은 캠핑 문화가 자리 잡기 전이었던 90년대부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오프로딩 투어를 떠나기도 했다.

Jeep에 대한 그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총 7대의 차량을 보유했는데, 그들 모두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다. "제가 직접 리스토어했던 빨강색 CJ-7은 Sunday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외에도 총 3대의 Jeep가 더 있죠. Tuesday의 93년식 WRANGLER YJ, Wednesday의 84년식 CJ-7, Saturday의 81년식 CJ-7가 있어요." 총 4대의 Jeep 차량 중 3대가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CJ-7이라고 하니, CJ-7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만큼 큰지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여름만 되면 Saturday(81년식 CJ-7)을 차고에서 꺼내서 루프를 벗겨냅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그 쾌감은 직접 주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한번 맛보면 결코 끊을 수 없는 중독성 있는 매력이죠. 자유를 제대로 만끽하는 기분이라고 할까. 작품 활동을 함에 있어 지속적인 영감을 일깨워주고 일탈을 꿈꾸게 해주었던 가족 같은 Saturday(81년식 CJ-7)에게 늘 고마워요."

01 로봇과의 상생을 꿈꾸는 작가의 생각이 오롯이 담긴 작업실
02 작가가 유난히 아끼는 CJ-7, 이름은 Saturday.

WRANGLER

김승현 —— 트레이너

김승현 트레이너가 트레일런을 즐기기 위해 지장산을 찾았다. 거친 산길과 골짜기를 달리는 트레일런은 거침없이 오프로드를 달리는 Jeep와 닮았다. 한계에 도전하는 짜릿함을 즐기는 김승현 트레이너, 그의 옆에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는 WRANGLER가 있다.

01

02

01 거친 산길과 눈밭도 WRANGLER라면 문제없다.
02 지장산으로 향하는 길, 비포장 도로라도 흔들림이 없다.

"거친 바윗길을 달리는 그 짜릿함이란, 자기 체력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성취감이 정말 크죠." 지장산에서 트레일런을 즐긴 후 김승현 트레이너가 말했다. 지면의 높낮이가 다르고 장애물 많은 산길을 달리는 트레일런은 운동이 일상인 그에게도 새롭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이다.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거친 산길을 달리다 보면 자연스레 몸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다.

"운동은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죠. 그리고 한 단계 올라섰을 때 비로소 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는 인생이 운동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끝없는 도전과 반복으로 성취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인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친 오프로드를 달리며 길에 도전하는 WRANGLER를 선택한 이유도 일맥상통한다. "처음엔 남자다운 매력에 이끌렸죠. 그 후에는 거친 길을 운전하는 매력에 빠져들었죠. 가파른 고갯길을 만나면 지금도 망설입니다. 하지만 WRANGLER와 저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가죠. 그러면 세상을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건강한 운동법을 알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그는 또 다시 다음을 준비한다. 작년 OCN을 통해 배우의 길에 몸담은 풋풋한 신인배우이기도 하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WRANGLER와 함께 씩씩하게 앞으로 달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무엇보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랍니다." 명료하고도 힘찬 다짐을 외치는 그의 옆에 거친 숨을 내쉬는 WRANGLER가 있다. 아마 WRANGLER와 그는 차와 오너를 넘은 인생동지이지 않을까.

Health Tip

지난 겨울동안 쌓인 복부 지방을 제거하고 싶다면 유산소 운동인 러닝을 추천한다. 러닝은 지방 분해뿐만 아니라 근섬유의 소실도 가져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달리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주 2~3회, 20분씩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Let's Go Outdoors

움츠렸던 대지가 푸르른 싹을 틔운다. 우리도 더 이상 움츠려 있을 수만은 없다. 스타들의 멋진 몸을 완성시킨 김승현 트레이너가 추천하는 아웃도어 스포츠로 겨울 동안 굳은 몸을 풀어보자.

Cycle

봄마다 한강에는 완벽한 복장을 갖춘 채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사이클을 스포츠로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이클은 아웃도어 스포츠로도 굉장히 훌륭한 운동 중 하나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면 근력이 강화되고 속도를 높이면 수영 못지않은 유산소 운동 효과를 가져온다. 사이클의 광장한 속도 탓에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날고 있는 듯한 착각을 주기도 한다. 봄을 맞아 운동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사이클을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안전한 운행을 위한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자전거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건강한 몸과 상쾌한 기분을 얻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Skateboard

굴곡이 있는 길과 스케이트보드만 있다면 어디서든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언덕을 내려가는 '다운 힐', 보드 위에서 걸어 다니는 '댄싱', 언덕을 내려가며 슬라이딩을 하는 '프리 라이딩' 등 모든 기술이 적당한 길과 스케이트보드만 있다면 가능하다. 스케이트보드에 입문하여 보드를 타고 다니는 '크루징'이 가능할 때까지는 보통 일주일, 적당한 운동 신경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몸을 보드에 맡길 수 있다.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보관도 쉬울 뿐만 아니라 아무데서나 탈 수 있으니 이만큼 안성맞춤인 아웃도어 스포츠도 없다. 단, 스케이트보드를 즐기기 전 보호대와 헬멧은 꼭 착용하도록 하자.

Stand Up Paddle board(SUP)

SUP는 서핑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으며 물살을 헤쳐나가는 아웃도어 스포츠로 보기와는 달리 패들보드의 부력 때문에 안 쓰는 근육을 구석구석 사용하게 만들어 운동 효과가 뛰어나다. 물살을 헤치는 재미와 근력 운동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적극 추천한다. 수영을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보통 발목에 끈을 묶고 무릎을 꿇고 앉거나 서서 노를 젓는 게 기본 자세라 물에 빠질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해외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 요즘에는 가까운 곳에서도 쉽게 SUP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대표적으로 뚝섬 한강시민공원, 송도 센트럴공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등이 있으며 장비까지 대여가 가능하니, 두 손 가볍게 SUP를 즐기러 떠나보자. 시원한 바람이 마치 하와이에 온 듯한 설렘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MY
First
RIDE

Jeep와 함께한 달콤한 일탈

Jeep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 같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말한다.
묵직한 승차감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사륜구동의 주행 성능,
Jeep의 외관이 주는 강렬함. Jeep의 모든 것은 일상에서 벗어난 달콤한 일탈을 꿈꾸게 한다.
Jeep를 만나 잠시 동안 일탈을 만끽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RENEGADE
서사무엘 —— 가수

2015년 Frameworks 앨범으로 한국 대중음악상
R&B and Soul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래퍼 서사무엘.
프로듀싱은 물론 비트메이킹, 연주까지 모두
소화 가능한 전천후 뮤지션 서사무엘과 대한민국의
낮과 밤을 돌아다니며 RENEGADE의 매력을 느껴보았다.

"아주 즐기는 편입니다!" 운전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서사무엘은 고민도 없이 즉각적으로 말했다. 그는 자동차를 말하며 자신의 향후 10년 계획을 말했다. "서울 근교에 커다란 저택을 살 거예요. 차고가 있는 넓은 저택. 그곳에 4대 정도의 드림카를 세워둘 계획입니다. 그중 하나가 Jeep예요. Jeep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남자답고 멋있잖아요."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했던 뮤지션의 모습과 다르게 자동차를 말할 때의 그는 어딘가 귀엽고 장난기 가득한 소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평소 음악 작업이 막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일주일 정도 서울 근교로 여행을 떠난다고 말했다. "주로 서쪽으로 가곤 해요. 그중에서도 영종도 혹은 송도를 좋아해요.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저녁에는 조용한 카페나 숙소에서 음악을 들으며 새로운 음악을 고민하죠. 평소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의 음악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업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행복해야겠죠. 그런 의미로 드라이빙을 떠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친김에 그가 자주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 떠난다는 송도로 향했다. 가는 내내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창문'이라는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18살 때부터 내고 싶었던 소리를 10년 만에 구현한 노래거든요. 밤에 듣기 좋은 노래예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완성도를

RENEGADE가 이탈자를 뜻한다고 들었어요.
제게는 첫 이탈이 음악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더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랐어요.
각자가 그들만의 행복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01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를 보며 향후 미디어를 통해 자주 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저는 혼자 천천히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해요. 소처럼 묵묵하지만 꾸준하게 사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RENEGADE 특유의 우직함이 저와 비슷한 느낌이예요. 처음에는 작고 귀여운 차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주행해보니 Jeep 특유의 강력한 힘이 느껴졌어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음이 너무 잘 되어있어서 놀랐어요. 다른 차 같은 경우, 고속 주행 시 풍절음이나 도시 소음 때문에 항상 정신이 없었거든요. RENEGADE는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를 못 느꼈고, 고속주행 시 땅에 붙어가는 듯한 안정감과 무게감이 운전의 재미를 몇 배는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코너링에서의 그립감은 큰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엄청난 그립감을 가진 차량이라 놀랐어요." 연희동에 있는 그의 작업실부터 송도까지 RENEGADE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점점 RENEGADE의 깊은 매력에 빠지고 있었다. 기세를 몰아 우리는 별처럼 반짝이는 야경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여의도로 향했다. 이동하는 동안 그는 오전에 말했던 '창문'을 들려주었다. 그의 말마따나 밤에 너무나 어울리는 음악이었다.

"RENEGADE가 이탈자를 뜻한다고 들었어요. 제게는 첫 이탈이 음악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더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랐어요. 각자가 그들만의 행복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예요." 행복 전도사를 자처하는 그는 불빛으로 반사된 아름다운 한강을 달리며 말했다. "사실, 처음 Jeep 촬영을 하게 된다고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나 원하던 드림카를 타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 타보니까 역시 Jeep 네요. 사실 제 드림카는 WRANGLER거든요. 근데 온종일 RENEGADE를 타보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만큼 매력적인 차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하던 서사무엘에게서 발견한 소년 같은 반전 매력은 귀엽지만 강력한 힘을 담고 있는 RENEGADE와 닮아 있었다.

02

01 자유를 갈망할 때, Jeep만한 것도 없다.
02 그는 시승 내내 RENEGADE의 악동 같은 매력에 빠져 있었다.

서사무엘이 추천하는 드라이빙 뮤직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리고 싶을 때
Deftones 'Change'

야경으로 밝게 빛나는 강변도로를 달릴 때
Lynyrd Skynyrd 'Simple Man'

퇴근 후,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 하고 싶을 때
Keith Jarrett 'When I fall in love'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드라이빙을 온전히 즐기고 싶을 때
Joonsam 'Whirlwind'

CHEROKEE
이우성 —— 작가

한국일보 신춘문예 출신 시인이자 〈GQ〉, 〈ARENA HOMME+〉의 피처 에디터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콘텐츠 에이전시 미남컴퍼니의 대표 및 러너스월드 코리아의 편집장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활동 중인 이우성 작가. 차갑지만 따뜻한 매력이 있는 도시남과 Jeep의 CHEROKEE가 만났다.

"가평으로 떠나고 싶다. CHEROKEE를 처음 봤을 때 생각했어요. 제가 뽀롱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정말 귀여운 친구죠.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빠서 잘 놀아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Jeep의 CHEROKEE를 봤을 때, 마음속에서 모험심이 꿈틀대면서 뽀롱이랑 함께 자연으로 떠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평 쪽으로 가면 애견들을 위한 애견 팬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같이 놀고싶어요."
체리 빛 CHEROKEE를 처음 마주한 순간 이우성 작가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언급하며 어린 소년 같은 반짝이는 눈빛을 보여줬다.
그의 말처럼, Jeep에는 모험심을 자극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알 수 없는 마력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우성 작가는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시인이다. 그리고 등단하기 전부터 피처 에디터로 활동하며 〈GQ〉, 〈ARENA〉와 같은 내로라하는 매거진에서 자신만의 글을 완성해나갔다.
"글을 쓰다 보면 막힐 때가 종종 있어요. 텅 빈 워드 문서만 바라보며 온종일 아무것도 써 내려가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차를 타고 회사 밖으로 나오곤 했죠.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쉬고 싶은 마음에 둘러댄 핑계일 수도 있죠. 그래도 노트북 한 대 들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음악도 듣고 여유도 즐기다 보면 결국 원하는 글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드라이빙이 정말 좋아요. 회사 직원들에게도 수시로 말해요. 회사 안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근처 카페나 공원에서 자유롭게 일해도 된다고 말이죠. 제가 드라이빙으로 막힌 업무를 풀어냈듯, 직원들 각자의 성향에 맞는 해결 방식이 있을 테니까요."

디렉터이자 시인인 이우성 작가는 CHEROKEE를 의외의 섬세함이라고 표현했다.

이우성 작가는 남성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라이프스타일도 함께 제안하는 프리미엄 편집숍 Howdy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총괄 디렉터이기도 하다. 작년 론칭한 신규 브랜드이지만, 상품을 콘텐츠화한 훌륭한 전략으로 금세 주목 받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Howdy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그에게 CHEROKEE의 디자인을 물었다.

"컬러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Deep Cherry Red라고 하셨나요? 너무 강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색감이 시선을 더욱 집중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외관도 날렵한 것 같아요. 저는 Jeep 하면 WRANGLER를 떠올리거든요. WRANGLER는 전반적으로 디자인에 각이 서 있잖아요. 그에 반해 CHEROKEE는 Jeep 고유의 아이덴티티는 살리면서도 날렵한 면을 보여줌으로써, 도시적인 매력도 함께 담아낸 것 같아요."

그의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장소인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에 위치해 있다. 그가 날마다 출퇴근하는 익숙한 길이기도 하다. 이우성 작가의 일상에 CHEROKEE가 있다면 어떨까. 그는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차일수록 승차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CHEROKEE는 그의 까다로운 기호를 만족시켰다. 묵직한 그립감과 안정적인 승차감이 그를 매료시켰다. 그렇게 스튜디오로 이동하면서 감탄을 연발하던 이우성 작가는 CHEROKEE의 반전 매력에 빠져들었다.

"승차감이 정말 부드러워요. 의외의 섬세함을 느꼈어요. 사실 Jeep

CHEROKEE는 Jeep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살림과 동시에 날렵한 면을 보여줌으로써, 도시적인 매력도 함께 담아낸 것 같아요.

도시남 이우성에게는 든든하고 효율적인 CHEROKEE가 잘 어울렸다.

하면 남자다운 거친 맛, 모험, 도전과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빙에서도 그런 성향이 느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도심형 SUV로 작정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CHEROKEE를 추천해 주신 이유도 조금 알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차가운 도시 남자 같지만, 옆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의외의 자상한 면과 따뜻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우성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CHEROKEE랑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너무 제 자랑만 했나요?"

이우성 작가는 Jeep의 매력을 강렬함이라고 말했다. Jeep의 오너라면 잘 알고 있겠지만, Jeep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지나다니는 행인 또는 다른 차량을 운전 중인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아무래도 Jeep라는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 이우성 작가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Jeep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를 이동할 때 Jeep를 보게 되면 항상 시선이 Jeep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거든요. 한순간 시선을 뺏는 압도적인 힘 같은 게 느껴져요. CHEROKEE는 그런 면에서 Jeep만이 가진 강렬한 DNA에 도시적인 섬세함과 날카로움까지 갖춘 전천후 SUV인 것 같아요."

문득, 이우성 작가가 애견 뽀롱이와 함께 가평의 물 좋은 곳에서 함께 뛰놀며 즐기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곳에는 CHEROKEE가 함께였다.

이우성 작가가 추천하는 CHEROKEE It-tem

Item 1

쌍둥이자리 아이링 + 아이링 도크 블랙

운전 중에 통화를 해선 안 되고,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도 안 되지만, 간단한 메시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 그래서 아이링과 아이링 도크가 필요하다. 아이링 매스티지 조디악은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별자리마다 특성을 알 수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이다. 특히 검정색 바탕의 금색 별자리 컬러가 세련되게 보인다. 붉은 체리톤의 CHEROKEE 외관과도 제격.

Item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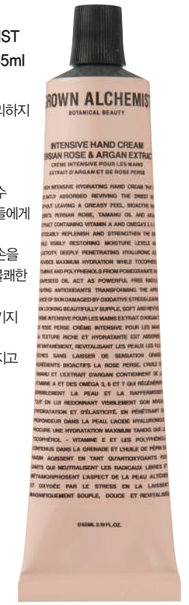
HELINOX Sunset Chair Bl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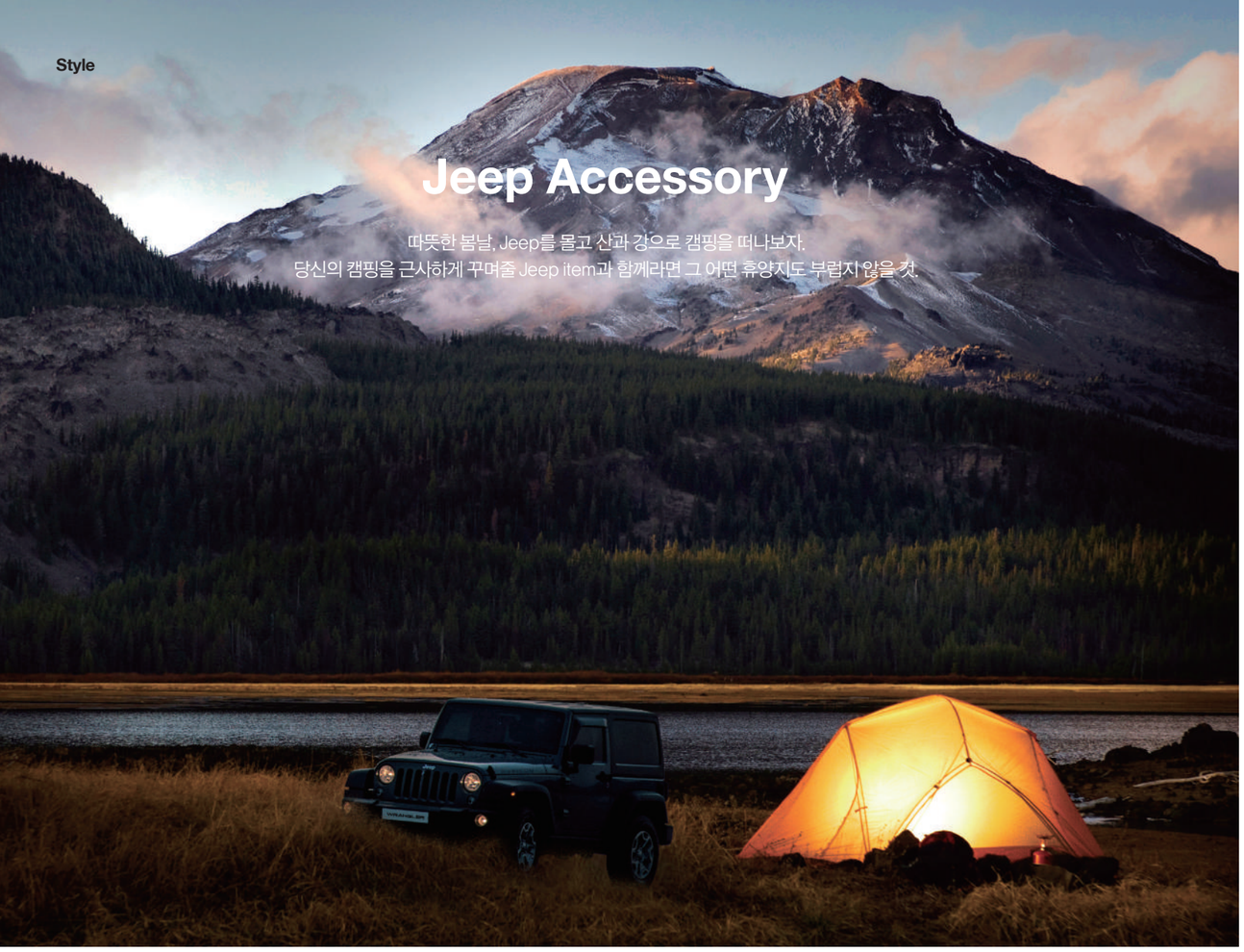
헬리녹스의 선셋 체어. 너비 59㎝, 높이 98㎝, 다리 길이 45㎝여서 등 전체를 기댈 수 있고, 케이스를 포함한 무게가 겨우 1.4㎏으로 들고 다니기 간편하다. 가벼운 무게임에도 불구, 145㎏의 하중을 견딘다고 하니 성인 한 명의 무게는 거뜬하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면, 이 작은 의자 하나를 트렁크에 싣자. 어느 곳이라도 당신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Item 3

GROWN ALCHEMIST 인텐시브 핸드크림 65ml

환절기면 더욱 푸석푸석해지는 손. 관리하지 않은 손은 각질과 때가 섞여 망신당하기 일쑤. 이 핸드크림 하나라면 곱디고운 손을 완성할 수 있으니 우리 같은 남자들에게 추천한다. 수분 함량이 많아 바르자마자 거친 손을 촉촉하게 만들면서도 불쾌한 끈적임이 없어 강하고 깔끔하다.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도 눈길을 끄니, 세련된 남자의 손을 가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자.





Jeep Accessory

따뜻한 봄날, Jeep를 몰고 산과 강으로 캠핑을 떠나보자.
당신의 캠핑을 근사하게 꾸며줄 Jeep item과 함께라면 그 어떤 휴양지도 부럽지 않을 것.

Item 1
Jeep HOOD SHIRT
(S/M/L/XL)
체온을 유지해 주는 원단 덕택에
캠핑 중 입기 유용한 후드 티셔츠.
Jeep 로고가 멋스럽게 새겨져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훌륭하다.
판매가 79,000원

Item 2
GREEN / RED KEY RING
LEATHER KEY RING
나만의 Jeep를 뽐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키링이 아닐까.
심플하지만 든든한 존재감을 가진 Jeep 키링으로
Jeep 오너의 모든 것을 갖춰보자. **판매가 15,000원**

Item 3
CAMP BLANKET L
일교차가 큰 야외에서는 몸의 체온 유지가 필수다. 부드러운
원단으로 만든 Jeep 담요를 두르고 따뜻하게 캠핑을 즐기자.
규격 200×140㎝ 판매가 79,000원

Item 5
RELAX CASUAL 1.0
습한 새벽녘에도 따뜻하게
체온 유지가 가능하도록
안감을 제작했다. 심플한
디자인과 높은 보온성까지 갖춰
어디서든 침구 역할을
톡톡히 하는 전천후 침낭.
판매가 99,000원

Item 4
CAMP GARLAND
하루 묵을 텐트를 쳤다면 가렌더를 걸어야 제격.
캠핑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Jeep 가렌더를 두르고
나만의 텐트를 완성하자. **판매가 19,000원**

Item 6
SUNCAP III
야외 피크닉의 필수품 그늘막 텐트. 촘촘한 그늘과
견고한 기틀로 어느 곳에서도 튼튼하게 텐트를 칠 수 있다.
2명의 성인이 누울 수 있을 만큼 공간도 충분하다.
판매가 139,000원

Item 7
BASEBALL CAP
(BLACK / WHITE)
멋진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야구 모자.
평범한 룩이라도 모자 하나면 스포티한 패션을 뽐낼 수
있다. 화이트 색상과 블랙 색상 두 종류가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판매가 25,000원**

Item 8
SQUARE BACKPACK
깔끔한 코디 연출이 가능한
블랙 색상의 스퀘어 백팩.
모던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스퀘어 백팩 하나면 패셔너블한
아웃도어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
판매가 169,000원

The Icon of Victory

오프로드 최강자인 Jeep의 시작은 남달랐다. 막강한 전천후 Willys MB는 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후 출시된 Willys M38은 한국전쟁에 참여하며 한국 자동차의 모태가 되었다.

Mission Impossible

Jeep의 첫 시작은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복고풍 경량' 군용 차량을 만드는 것이 Jeep 탄생의 첫 조건이었다. 미군은 이런 군용차량을 만들기 위해 미국 내 135개 자동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입찰에 참여하였던 회사는 아메리칸 밴텀(American Bantam), 윌리스 오버랜드(Willys-Overland), 포드(Ford) 단 세 회사뿐이었다. 입찰의 저조한 참여는 이유가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 차량이 아니었다. 4×4 성능을 갖춘 채 물을 건널 수 있어야 했고 270㎏ 이상의 물자를 실을 수 있는 전쟁에 특화된 차를 원했다. 이런 자동차가 탄생하기까지의 기간은 단 49일. 입찰에 참여한 세 회사의 공동 제작으로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였던 조건 속에서 Jeep가 탄생했다. 1940년 11월 시제품 Quad의 탄생으로 Jeep는 역사의 물살에 몸을 실는다. Quad의 시제품을 발판으로 Willy MA가 출범하였고 수천 번의 고된 테스트를 거친 후 1941년 7월, 개조된 차량으로 16,000대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로 이차가 미군 부대를 승리로 이끌었던 막강한 전천후 기능의 레전드 Willys MB이다.

Hero in the war

제2차 세계대전. 전장의 화염 속에서 미군과 함께 격렬한 전투를 벌이던 Willys MB는 전쟁 속의 영웅이었고 자유를 위해 싸우던 용사들의 영원한 'Old Faithful'이었다. Willys MB가 이런 영광을 얻기까지는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해내는 Willys MB의 전천후 기능이 큰 몫을 했다. 말과 오토바이, 사이드카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정도로 Willys MB는 강력하고 다목적인 차량이었다. 전사 시 이런 Willys MB의 활약은 대단했다. 산악전과 기습작전에서 특유의 기동력을 발휘했다. 전투에서는 .30 또는 .50 구경의 기관총 장착이 가능했으며 장거리 사막 정찰, 제설작업, 전화선 매설용으로 널리 개조되어 소방 펌프차, 현장 앰뷸런스, 트랙터로 상황에 따라 변신이 가능한 다재다능한 군용차량이었다. 차량의 역할 이외도 특수 훨을 장착한 Willys MB는 기찻길을 달렸고, 작은 몸집 탓에 수송기와 대형 글라인더에 실기도 편리했다. 모래바람이 날리는 사막을 견디고 물길을 달릴 수 있는 유일한 차량은 Willys MB뿐이었다. 실용적인 면도 뛰어났다. 마땅히 앉을 의자나 물건이 없던 전쟁터에서 Willys MB의 보닛은 임시 테이블이나 식탁, 연설대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Willys MB는 황폐한 전쟁을 견디고 고된 군사 업무를 수행하며 전사들과 모든 것을 함께 했다.

훗날 미국군무부장관을 역임한 조지 C. 마셜 장군은 "현대전에서 미국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Willys MB를 묘사했다. 스크립스 하워드 계열 신문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특파원으로 활약한 어니파일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일을 했고, 모든 곳에 갔다. 충견처럼 충직하고 노새처럼 강하며 염소처럼 민첩했다. 원래 성능의 두 배를 싣고도 여전히 달렸다." Willys MB는 함께 전투에 임했던 미군들에 의해 전사군인이나 상이군인에게 수여하는 "퍼플하트 훈장"의 후보가 되어 미해병대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런 Willys MB의 탄생은 이후 모든 4륜구동 자동차의 모델이 됐다.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된 8대의 차량 중에 Willy MB가 있다. 예술가들은 Willys MB를 "기계 예술의 진정한 표현 중 하나"라고 말한다. 거친 모험을 즐기고 뜨거운 열정을 담은 Jeep 역사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예술적 경지에 올랐다.

Jeep History in KOREA

1950년대, 군용 차량의 레전드였던 Willy MB를 모델로 Jeep는 다양한 전투용 버전 모델을 생산했다. CJ-3A, Willys M38, Willys MC는 전후 최초의 군용 Jeep였다. 그 중 M38은 Willys MB와 유사한 블랙아웃램프, 헤드라이트 가드로 만들어졌으며 새로운 24볼트 방수 점화장치, 그리고 연료탱크와 트랜스퍼 케이스, 트랜스미션, 엔진을 에어크리너와 연결하는 벤트 튜브 시스템의 일조로 완전한 수중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었다. 많은 사람에게 "최고의 플랫 펜더"로 알려진 바로 이 M38은 38선을 따라 한국전쟁에 영예롭게 참전한 군사 차량이다.
1952년 한국전쟁 당시 "다시는 수도 서울을 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M38은 국군과 미군을 도우며 북한군과 중국군의 침략에 맞섰다. 더욱 강력해진 구동력과 기민한 기동력은 군사 차량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이동차량의 역할뿐 아니라 M38은 내부적으로도 전장에 뛰어들 만반의 준비를 갖춘 차량이었다. 기관총과 칼빈소총을 탑재하고 프로판과 산소 시스템, 전화, 라디오, 삽, 도끼를 갖추고 있어 전쟁의 특수한 상황에 대비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더욱 막강해진 M38은 한국전쟁을 치렀던 군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한국전쟁 종전 후 '국제 차량 제작소'에선 전쟁 후 남겨진 M38을 수거해 부품을 재활용하고 철판을 오려 붙여 한국 최초의 차량 '시발차'를 출시하였다. '시발차'는 한국에서 탄생된 모든 차량의 원조이며 우리나라 자동차 발전의 모태가 된 귀한 문화유산이다. M38이 '시발차' 탄생의 모태가 되었듯이 Jeep의 발자취는 한국 자동차 역사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Let's Go Time Travel with Willys MB

Jeep의 전신이자 제 2차 세계대전의 영웅, Willys MB를 실제로 만나볼 기회가 있다.
진흙탕을 달리고 물살을 건넜던 Willys MB만의 독보적인 아우라를 경험해보자.

국내 최초로 Jeep 브랜드 전용 전시장을 선보인 강서 전시장. 새로운 오픈을 기념하며 열린 GRAND OPENING에서 그동안 쉽게 만날 수 없었던 Willys MB가 전시됐다. 실제 전장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이 Willys MB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한 美 2사단 82연대 본부중대를 뜻하는 '2A 82R HQ' 글씨가 범퍼에 새겨져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동이 가능한 모델이다.
올해로 Willys MB가 탄생한 지 76년, 전시장에 전시될 정도로 오랜 역사가 흘렀지만 Willys MB는 지금도 중후한 위엄을 뽐낸다. 단순히 전쟁에서 사용된 군용차량이라 하기엔 Willys MB는 이후 탄생한 많은 차량의 모태가 되었고 특히 사륜구동의 성능과 최강의 전천후 기능은 지금 오프로드 최강자로 자리 잡은 Jeep 브랜드의 기초를 만들었다. 가장 눈에 띄는 9개의 스탬프드 그릴과 전장에서 연설대로 사용되었던 넓은 사각형의 보닛 역시 Jeep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되었다.
FCA 코리아는 Jeep 브랜드만의 고유의 헤리티지를 간직하고 있는 Willys MB를 만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서 전시장을 시작으로 지난 3월, 두 번째로 Jeep 전용 전시장을 오픈한 인천 전시장에서도 Willys MB가 전시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서초 전시장, 대구 전시장 순으로 전국의 많은 고객에게 Willys MB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군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전례 없는 기록을 만들었던 Willys MB와 함께 Jeep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보자.

Willys MB 전시 일정
여기서 확인하세요!

Jeep korea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jeepkorea

Jeep korea
공식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jeepkorea

Brand News

Jeep만의 고유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Jeep 전용 전시장 OPEN

지난 1월 강서 전시장이 국내 최초 Jeep 전용 전시장으로 확장 오픈했다. 새롭게 오픈한 강서 전시장은 WRANGLER존을 별도로 마련하며 Jeep만의 오프로딩 감성을 전했다. 강서 전시장의 오픈을 기념하며 열린 GRAND OPENING 행사에서는 Jeep의 전신인 Willys MB가 전시되었으며 Jeep의 다양한 브랜드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강서 전시장에 이어 지난 3월, 두 번째로 인천에서 Jeep 전용 전시장이 오픈했다. 구월동 수입 자동차 거리에 위치한 인천 전시장은 모던 블랙과 내추럴 우드가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로 위풍당당한 Jeep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냈다. FCA는 앞으로 전국에 있는 기존 전시장을 Jeep 전용 전시장으로 계속해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서초 전시장, 대구 전시장의 순으로 Jeep 전용 전시장을 만날 수 있으며 지역마다 다양한 오픈 행사도 준비되어있다. Jeep 전용 전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독보적인 Jeep만의 브랜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기대해보자.

아름다운 풍광의 도시 인천에서 Jeep 전용 전시장 OPEN

3월 24일 새롭게 오픈한 인천 전시장은 나무와 돌, 가죽 등의 자연 소재를 반영하며 아웃도어를 누비는 Jeep의 감성을 표현하였으며 'HERO CAR ZONE'을 마련하여 Jeep를 대표하는 차량을 전시했다. 인천은 Jeep와 특별한 인연을 가지 있는 도시다. 한국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던 차량이 바로 Jeep였던 것. 당시 맥아더 장군은 Jeep를 타고 전쟁을 지휘하며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했다. 새로운 단장을 맞이하여 개최된 GRAND OPENING 행사에서는 이런 인천과의 역사를 떠올릴 수 있는 Willys MB가 전시되었다. Jeep 라인업 차량을 시승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승행사도 GRAND OPENING 행사에 풍요로움을 더했다. 새롭게 탈바꿈한 Jeep 인천 전시장은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구월동 수입 자동차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 서비스센터와 연계하여 차량 구매부터 서비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계를 뛰어넘는 COMPACT SUV, New COMPASS 출시

COMPASS는 온로드와 오프로드 크로스오버가 가능한 COMPACT SUV로 2006년 출시되었다. 이후 준중형 SUV의 최고 장점인 작고 경제적인 SUV 세그먼트를 정립시키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온 COMPASS는 다가오는 6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자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며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업그레이드한 New COMPASS가 한국 소비자들을 찾아갈 예정. New COMPASS는 온–오프로드 주행이 모두 가능한 최상의 TRAIL과 4×4성능을 제공하며 Jeep 고유의 디자인을 강화시키고 더욱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하였다. 탁월한 승차감과 핸들링, 70가지 이상의 첨단 안전 기술은 오너에게 안락하고 편리한 드라이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년 6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날 New COMPASS를 기대해보자.

Let’s go surf with Jeep

2017년, Jeep는 WSL과 파트너십 장기 연장을 발표했다. 이로써 Jeep는 WSL 자동차 부문 공식 독점 파트너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2015년부터 햇수로 4년째이다.
Jeep와 WSL은 자유와 모험을 열망하는 공통점이 있다. 거친 파도를 타거나 가파른 산길을 넘다 보면 자신을 묶어놓았던 한계를 벗어나는 희열을 맛본다. 이렇게 서로는 공통된 테마를 공유하며 전 세계의 팬들을 연결한다. 자유와 모험을 즐기는 서퍼들에게도 Jeep는 든든한 친구다. 완벽한 파도를 만나기 위해 험준한 지형과 깊은 모래사장을 헤치는 모든 여정을 함께하기 때문. 어디든 갈 수 있는 Jeep의 자유로움은 서핑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사로운 봄날, Jeep의 루프에 서핑보드를 싣고 떠나보자. Jeep가 가진 강력한 오프로딩과 높은 파도에 몸을 맡기는 서핑의 닮아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Service Centers

01 서울

씨엘모터스 강남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24
연락처 1588-4450

렉스모터스 성동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28
연락처 02-462-3131

빅토리오토모티브 서초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83
연락처 02-3478-0009

프리마모터스 영등포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30길 30
연락처 02-6925-0393

02 인천

JK 모터스 인천 서비스센터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94번길 13
연락처 032-881-3006

03 경기도

프리마모터스 일산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50-20
연락처 031-922-0117

보성모터스 수원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9
연락처 031-237-4230

빅토리오토모티브 분당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132
연락처 031-896-0005

04 강원

강원모터스 원주 서비스센터
위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14
연락처 033-766-6301

05 충북

렉스모터스 청주 서비스센터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42
연락처 043-277-3320

06 충남

비전오토모빌 천안 서비스센터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3-6
연락처 041-523-2211

07 전북

라온모터스 전주 서비스센터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두간2길 3-26
연락처 063-271-7300

08 전남

선일모터스 광주 서비스센터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39
연락처 062-676-8371

09 경북

경북모터스 포항 서비스센터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30
연락처 054-283-5336

10 대구

대경모터스 대구 수성구 서비스센터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177
연락처 053-564-0110

11 울산

우진모터스 울산 서비스센터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166번길 5
연락처 052-272-7600

12 부산

우진모터스 부산 서비스센터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101
연락처 051-704-0065

13 경남

대경모터스 창원 서비스센터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3길 1
연락처 055-296-1005

14 제주

프리마모터스 제주 서비스센터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2
연락처 064-745-4588

Jeep®

QR코드 찍고 특별한 행운을 잡으세요!
www.jeep.co.kr